

# 영어의 세계화를 이끌어온 성공회

안마태 신부 (은퇴 성직자)

세계에는 약 6,000 여 종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를 컴퓨터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어 문자는 겨우 60 여 종류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 60 여개의 문자중에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약 80 퍼센트가 영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0 퍼센트 미만이 다른 언어의 문자로 쓰여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문자로서의 영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있다.

컴퓨터 분야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언어로서의 영어는 산업(Industry), 과학(Science), 경제(Business), 항공(Aviation), 통신(Communication), 외교(Diplomacy)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동안 영어 문화권에서 생활해 오고, 오래도록 한글의 컴퓨터 입력 분야를 연구해온 필자는 자연적으로 영문 글자 체계와 우리글인 한글의 글자 체계를 비교해볼 수 밖에는 없었다.

우리 한글이 영어 글씨 체계보다는 백배 이상 훌륭한 과학적인 음성 글자인데도 우리글은 세계화를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문 글자는 음성문자로서는 아주 비과학적인 글씨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디를 가도 세계 인류 전체가 이 영터리 문자 체계를 익히느라 열병을 앓고있다.

그래서 영어가 세계화를 이룩한 그 뿌리를 캐보기로 했다.

영어는 17 세기 까지만해도 조그마한 영국 섬나라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보잘것 없는 독일어계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18 세기와 19 세기를 거쳐서 점점 그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영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미국의 영향력으로 모국어로 사용되는 인구보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용어처럼 통용되는 언어(lingua franca)로서의 역할이 더 커져가고 있다..

현재 모국 언어로서는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약 13 억), 서반아(주.스페인)어가 그 다음으로 많은 약 6 억정도가 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5 억이 조금 못되지만 제 2 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10 억으로 추산되며,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어 교육에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인구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세계인의 언어로 확실히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된데에는 영국 성공회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공회를 나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헨리 8 세 왕이 왕비와 이혼하기 위해서 세운 교단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영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무식한 내용이다.

헨리 8 세 왕의 첫째 부인은 원래 자기 형의 부인이었는데 강제로 형수와 결혼한것을 결혼 무효를 인정해 달라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된다. 형수와 의 결혼으로 왕자를 낳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으나 딸만 낳게 되므로 왕으로서는 왕가의 대를 이어갈 왕자를 낳아줄 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헨리 8 세 왕은 절대 군주로서의 왕권을 발동하여 영국교회의 대주교(그 당시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로 하여금 1534 년에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하였고, 로마 교황의 권한을 영국에서는 행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로마 교황의 수족 역할을 해왔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원 재산을 모두 왕실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에 교황청은 헨리 8 세를 파문하였다.

하지만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일은 한번도 없었고, 죽는날 까지도 자신은 카톨릭 교인으로 생각했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다. 교황청에 반기를 든것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다만 그의 왕권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후 헨리 8 세 왕은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둘째 부인과 결혼을 하지만 그에게서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세번째 결혼을 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게 된다.

하지만 그 아들은(에드워드 6 세) 아버지 왕이 일찍 죽자(1547 년) 겨우 9 살에 왕권을 물려받아 선왕의 반 로마 커톨릭적인 노선을 택하지만 그도 일찍 죽게되자(1553 년),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가 더 없으므로 헨리 8 세 왕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메리 여왕이 왕권을 물려받게된다.

그는 선대 왕들의 노선을 무시하고 완전히 로마 교황권으로 되돌리고져 많은 성직자와 교인들을 학살하게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칵테일 술 이름에도 **브라디 메리(Bloody Mary)**,-붉은 색의 토마토 쥬스에다 보드카 술을 탄 칵테일)라는 이름을 남기게될 정도로 카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

메리 여왕도 일찍 죽자(1558 년) 그의 대를 이은 여왕이 헨리왕의 두번째 부인에게서 난 엘리자벳 1 세 여왕이다(1558 년-1603 년까지 44 년간 재위). 이 엘리자벳 여왕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양쪽의 극단적인 논쟁을 잠재우고 조용히 영국의 교회를 오래도록 중도로 이끈 대단히 훌륭한 군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 당시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민온 영국계의 식민지 주 이름을 “처녀여왕” 이라고 불린 에리자벳 1 세를 따라 “버지니아”로 붙여졌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라는 교단으로 면모를 갖추게한 실질적인 임금은 이 엘리자벳 1 세 여왕이었다.

그러므로 헨리 8 세 왕은 성공회라는 교단을 만든 사람은 아니였다. 오히려 그는 죽는날 까지도 카톨릭 교인으로 행세했다.

다만 왕권을 이어나갈 왕자를 얻는데 관심이 많아서 절대 군주로서의 왕의 권위로 영국의 대주교를 앞세워서 카톨릭 교황으로 부터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영국 내에서의 교회 수장으로 선포하게 하였고, 그의 왕권을 확립하는데만 전념하였다.

부인을 여섯번이나 갈아치운 파렴치한 왕으로 낙인 찍혀있고, 절대군주로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그는 2 명의 부인을 교수형에 처한 임금이었다) 이름이 나 있지만 그 당시 다른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국력이 형편 없었던 영국인에게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통합하는데 압장섰고, 영국의 영토 확장을 꾀하려고 스페인과 연합전선을 펴고 불란서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헨리 8 세 왕이 영국 국민들을 위한 노력에는 영토 확장에만 노력한것이 아니고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영어로된 성경을 읽도록 왕명으로 이를 허용한 사실이다. 이런 왕명이 내려지기 전 까지도 영어 성경을 해외에서 번역하여 영국으로 들여온 윌리엄 틴데일 신부를 1536 년에 참수형에 처해서 목둘라 죽인 시체를 다시 화형을 시키는 잔인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불과 3 년이 못된 1539 년에 영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히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를 왕명으로 허용하였다. 그때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사용하게 하였으며 성경을 자기나라 말로 번역하거나 인쇄를 하는것은 불법이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했다.

헨리 8 세 왕이 라틴어로만 읽혀지던 성경책을 영어로 읽히도록 허용한 것은 영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처사였고 그의 후계자인 에드워드 6 세왕 때인 1549 년에 영어로된 공동기도서를 만들게 됨으로서 구라파 여러 나라에 비해서 영국인 전체가 모두 유식한 국민이 된것이다.

에드워드 6 세 이후에 그의 배다른 누나인 메리 여왕 때에는 한동안 영어 성경책을 불살라 버리고 반 로마 카톨릭 성직자를 모두 목잘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있었으나 그의 배다른 여동생인 엘리자벳 여왕은 아버지의 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도 받아드리고 배다른 언니인 그의 선대 여왕의 카톨릭적인 전통도 고스란히 받아드리는 중도의 정책을 세워서 성공회라는 교단이 극단을 피하는 중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

교회의 기도서를 양쪽의 극단적인 용어를 피하고 카톨릭적인 의전 예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어 기도서로 여러번 수정하여가며 영어를 자기 국민들이 애용하도록 선도하였다.

영어가 세계인의 언어가 되게하는데는 그의 후임자인 제임스왕 대에서 더 강조되었다. 제임스왕은 원래 영국인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엘리자벳 여왕이 처녀로 늙어 죽자 그의 대를 이어줄 왕손이 없으므로 엘리자벳 여왕과는 한 혈통을 가진 스코틀랜드의 왕을 영국의 왕으로 모셨기에 영국으로서는 스코틀랜드와 자연적으로 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 제임스 왕은 영국인의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왕좌에 오르자마자 1604 년에 새로운 영어 성경 번역을 하도록 명하여서 7 년간의 노고를 거쳐 1611 년에 새로운 번역 성경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 성경책은 지난 4 세기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며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나라에서 읽혀지는 책이다.

이 성경책은 성공회 안에서 그 당시의 급진적인 혁신을 요구하던 청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제임스 왕이 원래 54 명의 학자들을 왕명으로 번역자로 선택하였으나 실제로 번역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46 명의 성공회 신부님들과 한분의 평신도가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6 개의 위원회로 분리되어 오랜 작업끝에 1611 년에 완성하게 되었다.

필자가 뉴질랜드로 가서 공부하던 신학교에서는 60 년대 초 까지도 이 1611 년도판 킹 제임스 버전으로 공부하였고, 1662 년도 판 영국 성공회의 공도문으로 매일 아침 미사 때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대 영어보다는 엘리자벳 시대 혹은 세익스피어 시대의 영어로도 불리우는 고전 영어가 더 친숙하였기에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유식 계급으로 취급 받았다.

영국 국민은 자기나라 말로 기도를 보고 자기나라 글로된 영어로 성경을 읽고 가르쳤기에 1600 년대부터 새로운 대륙인 미국으로 이민온 영국계는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보다 숫자로는 열세였지만 유식한 사람들이였기에 이들이 미국을 이끌어왔고 영어가 주어(主語)가 된 나라로 만들었다.

미국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계가 아니었지만 미합중국을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처럼 잘 교육된 영국계, 그리고 주로 성공회 교인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성공회 교인들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교도들이란 성공회 교인들 가운데에 급진적인 교회 혁신을 부르짖던 반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어서 교회 예전을 부인하고 성공회의 전통적인 성직 제도를 부인하던 극단적인 혁신주의자들이었다.

중립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성공회 교인들로 부터는 따돌림을 받게되자 이들은 화란(주.네덜란드)으로 이민을 갔으나 거기서도 정착이 안되기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에 미개지인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하게된 성공회 교인들이었다.

이들의 후손들은 모국에서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대학들처럼 하버드와 예일 대학을 세워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영어가 세계어가 되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들보다 한세기나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음성문자를 만들어 우매한 백성을 다스리려던 세종대왕의 꿈은 글을 만들자 말자 반포도 하기전에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쳐, 만들고 나서도 3 년이 지난 1446 년에야 겨우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반포를 하게된다.

그후 계속 버림받아 오다가 나라를 온통 남의 나라에 빼앗기자 그때부터 다시 자기 나라의 글자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문맹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문자 전송을 할수있는 민족이 되어가고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자는 없어졌지만 그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글씨체인 영문 글자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친 로마 카톨릭의 노선을 따르느냐 아니면 반 카톨릭의 노선을 따르느냐는 고민에서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카톨릭적인 예전의식과 성직제도는 따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프로테스탄트 노선을 따른 영국 성공회는 어느 노선을 따르느냐는 갈림길에서 16 세기 후반에 많은 성직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데 공헌한 영국성공회 성직자들의 공로는 정말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피를 흘려가며 세계인의 언어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런 성공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필자는 세계인이 공통된 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은퇴 후 가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의 설교를 하는 자원 봉사 시간을 빼고는, 세계 각국을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해 보이느라 컴퓨터백 하나 달랑 매고는 개미 쳇바퀴 돌듯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